

한우 자조금 06

2010년 6월호 누리달 온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차 넘치는 달

※ 누리달은 6월의 순우리말입니다.

특집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안),
방역 · 검역 관련 제도개선(안) p.02~04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즐거라! 월드컵을! 맛보라! 한우를! p.05
구제역 위기 극복 프로젝트 p.06

길마

길마 ▶ 소등에 얹은 안장의 일종으로 많은 양의 짐을 한꺼번에 실기 위해 사용하던 옹구나 발채 또는 거지게 등을 여기에 걸어 사용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안), 방역·검역 관련 제도개선(안)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업무 수행 시 도출된 문제를 반영하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과 방역·검역 관련 제도를 개선중에 있다. 여기서는 개선(안)들을 요약 정리하여 본고에 게재한다. 농가에서 보완사항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편집자주〉

축산농가 준수사항

구제역 미발생지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송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구제역 방역지역

(발생농장 반경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사육 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구제역 의심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금지
 -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 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 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다만, 축산 분뇨 공동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방역대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선언

위험지역

(경계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

-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 위험지역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계지역

- 경계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

치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지역

- 관리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발생종식 시 그 결과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하며, OIE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비발생국으로의 승인을 요청한다.

한우 세부 구매기준

수매대상

- 암·수 및 거세·비거세로 구분하여 일정 월령 이상 수매
- 거세우 26개월령·비거세우 20개월령·암소(임신우 제외) 4세 이상
 -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통해 수매개체별 월령 확인

수매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시하는 한우 육질등급별 전국평균지육가격 적용
- 수매일(도축장도착일)기준 전전일로부터 산하여 실거래 5일간 가격적용
- 수매가 : (지육중량×지육단가) + 부산물가격 - 도축제비용
(도축세, 도살해체수수료, 자조금, 검사수수료, 등급판정료)

- ※ 부산물가격 : 서울(또는 부천)축산물공판장가격 적용
- ※ 거세우 여부는 시·도 검사원과 등급판정사가 합의로 결정

평시 방역·검역 관련 제도개선(안)

[농가 소양 함양 및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 면허제 도입

-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제 도입(축산법 개정)
- 면허요건 : 일정기간 방역·안전·경영 등에 관한 교육 이수
 - 최초 면허 발급시 기존 농가, 신규진입, 축산관련 학교 졸업자 별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내용 차별
 - 면허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 농장소독, 분뇨처리 미흡 등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축산업등록제 강화

- 적정한 가축 사육밀도 유지 및 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등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 강화(축산법 시행령 개정)
- 등록농가 확대 : 사육시설 50~300㎡ 초과 → 50㎡ 초과
- 축산업 등록 기준 강화
 - 종축시설 : 담장, 출입구 소독시설, 후보종 축 격리시설 설치 의무화
 - 축사시설 :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지(자가, 임대, 계약) 확보 의무화, 정화처리하는 농장은 제외
- 적정사육기준 위반 농가 및 행정처분 미흡 지자체 제재 강화
 - ※ 축산업 의무등록 농가는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규정(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실적 미흡

외국인 근로자 관리

- 사람이나 불법축산물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

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가축전염병 예방법)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축산농가는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시장·군수에게 신고 의무화

축사환경 평가기준 마련

-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최저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
- 축사환경 평가기준 마련, 정책대상 선정시 평가결과 적용
 - ※ 농장 HACCP 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준 설정
- 차단방역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 컨설팅 지원 확대

축산물 인증제 개편

- 농장단위 HACCP 지정제를 축산물 GAP 인증제로 전환
- 축사환경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축산물 GAP 기준 설정

[축산농장 출입자 방역 의무 강화]

농장 출입자 방역의무 강화

-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 축산관련 시설 :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이 집하되는 시설,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가축분뇨 처리장 등
- 의무사항 강화 : 차량 소독 및 기록관리 → 탑승자 소독 추가
- 의무사항 확대 : 가축·원유·동물약품·사

료·가축분뇨 운반자 → 기존, 수의사, 인공수정사, 컨설턴트 등 모든 출입자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 질병 전파방지,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미신고상인 가축 거래 금지(축산법 개정)
- 가축거래상인의 범위 : 가축시장 또는 축산농장에서 가축을 구입하여 판매·도축하는 자
 -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축산농가도 타인의 가축을 매입하여 거래 차익을 얻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

[국경검역 강화]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시스템 구축

- 해외 악성가축질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해외여행 검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5.10~)
- 출입국관리소 협조로 축산농가 입국시 신고·촉구 문자메시지 발송,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소독 조치 및 방역교육
 - 공항만 검역관은 축산농가가 신고할 경우 소독 절차를 거친 후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소독 확인증 발급

축산농가 입국 시 신고 의무화

- 축산관계자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 삭감 등 제재 강화





즐거라! 월드컵을! 맛보라! 한우를!

12번째 전사들과 함께한 한우 한마당 축제...이색 응원전 펼쳐

전국민이 기다려온 2010년 6월이 찾아왔다.

이번 월드컵도 붉은 악마의 함성이 고스란히 재연됐으며 응원의 뜨거운 열기속에 한우자조금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식회와 이벤트로 국민들의 붉은 함성과 함께 호흡했다.

첫경기가 펼쳐지는 12일 그리스전에는 컬투와 캔이 함께 서울 여의나루 한강공원에서 2만 100명이 참여하는 '모이자 이만백' 응원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국민이 다함께 푹푹 뭉쳐 이기자는 취지로 한우 주먹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동시에 한우캐릭터, 태극문양, 치우천왕 문양의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의 염원을 얼굴에 담았다.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 17일 아르헨티나전에는 농협이 주관하여 과천 경마공원에서 승리기원 한우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8강 승리 기원을 염원하고자 한우불고기 8,000인분을 무료로 제공했고,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한우 세트를 100원에 경매하는 이벤트도 펼쳐졌다. 또한 유소년 축구선수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과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한우 요리 특강 등이 열렸다.



구제역 위기 극복 프로젝트!! 소비자 곁으로 한걸음 더!!

농협과 연계해 시식행사 및
가두캠페인, 이벤트 진행



그동안 끊임없이 보도된 구제역관련 뉴스로 인해 소비자의 한우 소비가 위축되고 불안심리가 확산됐다. 또한 계절적 비수기와 겹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농가의 불안정한 사

육심리가 우려되어 한우자조금은 농협과 연계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공격적인 소비촉진 활동하고자 '구제역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우선 전국 축산물 프라자 및 전문판매장과 직거래 장터, 이동차량 등 235개소에서 할인판매를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체화부위 중심으로 시중가대비 10~3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한우의 안전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직거래 장터 및 유동인구 집중지역에 시식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국 각 도별 농협지역본부는 12일, 13일에 등산로 입구에서 시식 및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태극전사들 '한우먹고 파이팅'



한우 114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이슈를 활용,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한우 부위별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에게 흥미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7일부터 23일까지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거친 태클 때문에 관전에 무리가 가는 대표팀에게 뼈에 좋은 사골을, 뜨거운 태양 아래 경기하는 대표팀에게 피부에 좋은 우족 등 우리 선수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한우부위를 선택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가장 많이 득표

된 부위를 선택한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해당 부위를 증정한다.

또한 16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반 모여라! 한우버거 먹자!'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우 우둔 애니메이션을 퍼간 뒤 응모하면 한우불고기버거 40개씩을 10개 해당 학급에 증정한다.

FIGHTING
KOREA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 방안 제시

정책자문협의, 사료가격 안정대책, 근출혈 보상 등 논의



한우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우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

남호경 위원장은 “한우산업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우 정책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료값 안정 대책으로는 우선 특별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우정액 공급체계와 가격인상 추진에 대

해서는 암소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이며 그 이후에 정액 가격 인상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근출혈 농가의 보상 대책으로는 우선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출하농가와 정부, 도축장 등이 함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축산업 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방역과 사양, 환경 등에 대해 소정의 교육이수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육질 등급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되고 앞으로 ‘맛 등급’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우자조금은 이날 제시된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정책방향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으로는 위원장 조석진(영남대 교수), 박홍식 사무관(농식품부), 허덕 박사(농촌경제연구원), 김명규 회장(축산물위생처리협회), 공준식 사무국장(한우협 경기도지회), 장기선 부장(한우협회), 김현진 교수(서울대학교), 이석재 조합장(충주축협), 김영길 부회장(한우협회), 박승술 전북도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육식당 부가세가 발목잡아...안정적 판로 확보 시급

‘한우 생산자조직의 직영정육식당 성과와 발전과제’ 포럼서 제기



한우자조금과 지역재단은 5월 27일 ‘한우 생산자조직의 직영정육식당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포

럼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예천 지보참우마을 최병용 대표는 2006년 정육점형 식당을 개점해 2009년까지 한우를 직접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우 판매가가 높아져 소비가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우 정육식당에 대한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가세 문제로 판매가격이 상승해 점차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인식이 불식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한우정육식당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며 좋은 인식도 많이 남아 있어 한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맛으로 승부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부가세 면세 문제와 제금 경감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축제지원...
행사수익금은 장학금 · 공익단체 기부

‘점음의 축제’ 한우와 함께 만끽하다

한우자조금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양대, 경북대, 서울시립대에서 한우를 알리는 행사를 실시, 그 수익금을 장학금 및 공익단체에 기부했다.

서울시립대 5월 19일

한우 불고기 시식행사를 진행, 한우의 소비촉진 향상을 바라는 우리 농가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양대 5월 20일

한우팔씨름대회, ‘한우덮밥 빨리 먹기 대회’를 열고, 우승자에게 각각 한우선물세트, 한우육포세트를 제공했다.

또한 생활학대학회, 경영대학, 정치외교학과 등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우를 지원해 판매한 수익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했다.

경북대 5월 20일

‘한우모형 한우버거’를 만드는 행사가 진행됐다. 한우 사랑의 염원을 담은 한우모형 한우버거 만들기 행사는 경북대 예술대학 학생들이 한우모양의 초대형 한우버거를 제작해 천원에 판매했으며, 그 수익금을 공익단체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숙련된 사람의 눈이 더 정확 하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바다 속을 탐지하는 기기의 기능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10여 년 전부터 국내의 한우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육질 진단장치의 경우 정확한 판독을 위해 해상도를 조금 더 높임으로써 화상이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인체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1/5 ~ 1/10 수준이고, 판매대수가 제한되다 보니 신제품개발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료회사나, 축협 지도담당자가 자가로 진단하는 컨설팅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미 축산 선진국에서는 개량부문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육우 출하직전의 진단을 통해 출하시기조절에 활용하는 경우가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지도형태이다.

한때는 육량지수에 맞추어 초음파측정수치를 대입해 육량을 예측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육질자동분석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다. 하지만 화상에서 비춰지는 흑백의 명도를 수치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정도로 경제성에서 어려움이 판단되어 이론적으로만 완성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판독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예측정확도가 달라지니, 여기저기서 웃지 못 할 얘기들도 들려왔다. “아니 지역에서 1+ 라고 한 것이 왜 등급 판정결과 2등급 나왔냐?” 하면서 등급판정사를 원망하던 소리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숙련되지 않은 현장측정자들이 늘어나면서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지역마다 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판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람의 눈이 때로는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눈을 가지기 위한 전문교육의 이수와 이를 자기만의 기술로 확립하기 위한 전문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양축가들의 적극적인 보조를 통해 많은 농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개월 전후의 개체를 측정해서 육성기부터 비육전기의 사양관리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값비싼 사료를 과잉급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소 급여하는 사료의 양을 체크해보며 사료급여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문해보자.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컨설팅을 통해 사양관리 개선에 활용할 뿐 아니라, 암소개량에 활용하게 되면 차별적인 우수 한우생산이 가능해 질 것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송영한 교수
한우연구회수석부회장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농가직영 한우식당, 미니홈피로 홍보하세요!

이제 한우 114에서 농가직영 한우식당의 미니홈피를 지원, 손쉽게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홍보할 수 있다. 한우114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의 미니홈피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한 후 소개 및 사진 등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새로이 개설되는 한우식당 미니홈피는 식당 소개, 약도, 메뉴, 예약,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다.

www.hanwo114.co.kr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 ID옆 '미니홈피 신청' 클릭!



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 인증점

한우농장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6-1 • 대표자 조민희
• 전 화 032-322-4592 • 홈페이지 www.한우농장.kr

• 한우모듬(500g) 52,000원	• 안심(500g) 59,000원	• 제비추리(2인) 50,000원
• 한우채끝등심(500g) 49,000원	• 차돌박이(2인) 35,000원	• 상차림비(1인) 3,000원
• 한우꽃등심(500g) 59,000원	• 한우토시(2인) 50,000원	※ 7세이하무료

정량판매를 시행하는 정직한 업체로 MBC 불만제로에 모범식당으로 방송된 부천 한우농장은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져 평일에도 한우 고기를 사러오는 손님이 많다.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한우농장은 언제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맛깔스러운 먹거리를 제공한다.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실시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한우전문점의 경영개선을 통한 한우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을 29일, 논현 1문화센터에서 실시한다. 200여명의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한우전문점接客서비스 마케팅, 인력 및 노무관리, 한우 저지 방부위 메뉴 개발과 스토리텔링 및 온라인 마케팅 기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한우뉴스

◎ ‘한우소비 촉진’ 이효리 파워 기대

한우자조금, 광고모델 기용

2010년 한우자조금 광고 모델로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선정됐다.

한우자조금은 이효리씨가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방송인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최고의 모델이라며 수입육의 거센 공세 속에서 소비층을 넓혀나가야 하는 한우 홍보에 더없이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역본부, 소 사육정보 일제조사 실시

7~8월 2개월간 방문조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농가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 사육정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원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장의 기본정보 및 사육정보를 조사하게 된다. 방역본부는 방문 목적과 방문시기를 사전에 통보하며 집계된 사육정보는 쇠고기이력시스템과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FAHMS)에 사용된다.

◎ 한우농장 HACCP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농진청, 8개분야 35개 메뉴 구성...무상공급키로

농촌진흥청은 한우농장 HACCP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한우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농촌진흥청은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외부로부터 위해세균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방역 관리를 비롯해 농장출입관리, 질병관리 등 8개 분야 35개 메뉴로 구성돼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한우 건강관리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출하 전 농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들의 차단여부를 사전에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어 한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교육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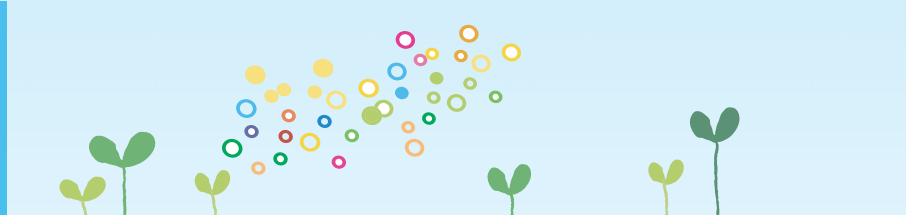
기간	교육장소	
7.06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남 당진
7.07	남양유업 호남공장	전남 나주
8.11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경기 용인
8.12	농협 안성교육원	경기 안성

한우사육단계 HACCP 농업인과정 교육

한우자조금과 농협은 한우사육단계 HACCP 농업인과정 교육을 7~8월에 실시한다. 50명씩 4회로 실시하며 HACCP의 이해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인터넷(www.meatacademy.c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우정책 Q&A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원)

추진 배경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 생산기반 구축
추진 내용	• 시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급기간 : 3년(연속 또는 불연속 가능) • 사업예산 : 30억원 • 지급대상 기간 : 10월 31일까지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 100% • 지급한도 : 농가별 최대 20백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20% 인센티브 지급) • 지급단가 : 유기(170,000원/두), 무항생제(65,000원/두) • 지원대상 :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중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생산농가



청소년 한우 맛체험

- ① 경남 밀양·세종중, 고 | 5월 10일
- ② 경남 남해·제일고 | 5월 14일
- ③ 경남 창원·중앙고 | 5월 18일
- ④ 강원 원통·원통중, 고 | 6월 11일
- ⑤ 강원 인제·인제중, 고 | 6월 11일
- ⑥ 강원 춘천·춘천여중 | 6월 15일





청소년 한우 맛체험

- ① 대구·성남초 | 6월 1일
- ② 대구·논공중 | 6월 3일
- ③ 대구·용지초 | 6월 3일



청소년 한우 맛체험

- ④ 대구·월서초 | 6월 4일
- ⑤ 대구·교대부속초교 | 6월 7일
- ⑥ 대구·사대부속초 | 6월 7일
- ⑦ 대구·육수초 | 6월 8일
- ⑧ 대구·학산초 | 6월 8일

7월의 할 일

일반관리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및 생산성저하를 방지하도록 소의 체감온도에 유의한다.

산아초를 베어 먹이거나 건초를 만들어 급여하고, 농산, 식품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호우에 대비하여 축사와 운동장, 초지 및 사료포 등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쇠파리와 모기, 진드기 등의 흡혈곤충과 파리를 구제한다.

또한 배합사료가 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가임암소가 줄고 있어 우량 송아지의 확보가 어려운바, 믿을 수 있는 번식농가와의 직거래 또는 일관사육을 통한 자가생산 등으로 우수한 송아지를 확보한다.

사양관리

물을 많이 먹으므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소금을 자유로이 먹이며 사료조와 급수기를 자주 청소해 준다. 또한 비타민과 광물질 요구량이 많으므로 충분히 급여하고, 비 맞은 풀은 물기가 마른 후에 급여한다. 기온이 27℃ 이상이 되면 고온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료 섭취량의 저하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사료는 아침, 저녁 서늘한 때에 자주 급여하고, 특히 조사료는 소화되기 쉬운 양질조사료를 잘게 잘라서 급여한다.

배합사료를 무제한급여하는 번식우사양은 배합사료를 제한급여하는 사양관리로 건강하고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육성하는 것이 생산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방역 및 위생관리

축사바닥이 지지분하고 깔짚이 젖어 있고 환기가 불량하면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통풍 및 건조한 환경유지에 힘쓴다. 특히 분만사가 불결하여 갓난 송아지가 호흡기질병 및 설사병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어미소를 분만에 임박하여 분만사로 옮기고 건조한 깔짚을 충분히 깔아 준다. 또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초유를 먹을 때 똥 속에 들어있는 병원균을 섭취하지 않도록 어미소의 대퇴부와 유방 및 유두 등을 깨끗이 닦아준다. 생후 20일 정도는 다른 소들과 격리하여 어미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포유 중에도 별도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송아지방에서 사육한다.

초지 및 사료포관리

장마 중에 방목을 시키거나 장비로 예취할 경우에는 토양의 과도한 진압으로 초지 황폐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고온기에 목초를 너무 짧게 베면 뿌리의 활력이 불량해진다. 또한 무성하게 놔두면 가뭄의 피해를 입기 쉽고, 통풍 및 일조 불량으로 인해 목초가 썩으며 병충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장은 10~15cm로 유지한다. 한낮의 기온이 30℃에 이르므로 초지이용을 가급적 삼가하여 목초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옥수수 조영나방 등이 발생하는지 잘 관찰하고 발견 즉시 약제를 살포한다. 6월말 수확하지 못한 수단그라스는 초순경에 청예로 베어 먹인다. 또한 8월 중 옥수수의 수확에 대비하여 하베스타 등 장비와 사일로 등을 정비한다.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한우기량사업소

표지이야기 **길마**

새끼로 망태처럼 엮어 만든 옹구는 많은 양의 두엄이나 큰 채소 등을 옮길 때 사용하던 농구(農具)이며, 싸리 등을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엮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소쿠리 모양의 발채는 지게에 올려 사용하기도 한다. 거지게는 길마 양쪽에 하나씩 덧대어 많은 양의 짐을 한꺼번에 옮기기 위한 보조지게틀이다. 이런 옹구, 발채, 거지게를 소등에 걸기 위하여 받침대 역할의 보조적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던 것이 길마이다. 말굽쇠 모양으로 구부러진 나무 2개를 앞뒤로 나란히 놓고 안쪽 양쪽에 2개의 막대기를 대어서 이들을 고정시켜 만들어 진다. 안쪽에 짚으로 짠 어치를 쿠션 역할로 대어서 소의 등에 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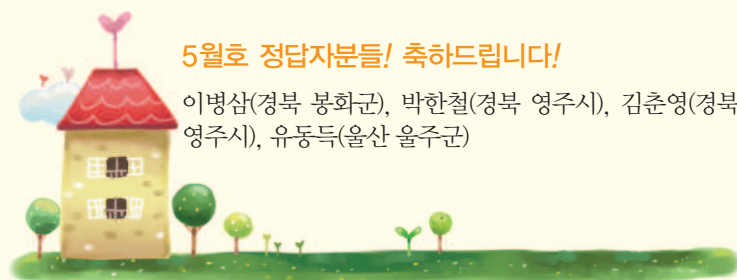


애독자 코너

이번 구제역 방역을 진행하며 도출된 문제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메뉴얼을 개정했습니다.
메뉴얼 세부내용으로 농가는 방역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신고를 필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메뉴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5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병삼(경북 봉화군), 박한철(경북 영주시), 김춘영(경북 영주시), 유동득(울산 울주군)

전국 한우像 순례 ⑤

여의도 '황우(黃牛)'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건물 앞에 건조된 "황우(黃牛)"라는 제목의 한우상이다. 前 전남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국내 대표적 조각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행신 작가가 1994년 6월 20일 제작하였다. 국내에 건조된 한우상 중 높은 예술적 가치와 함께 정중동(精中動)의 한우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보다 힘있고 역동적인 느낌을 위해 경북 청도 소싸움대회에서 우승한 황소를 모델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정서와 잘 어우러지는 한우의 느낌이 디테일하게 잘 살려져 있으며, 거의 실제 황소크기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현실감 또한 뛰어나다.



이제는 소비촉진 홍보입니다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공급과잉을 대비한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상되는 한우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해 강력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TV광고 실시(이효리 “천하무적, 한우” 편)
- 계절적 요인과 소비패턴에 맞춘 TV드라마 및 생활방송에 간접광고 실시

■ 소비촉진 이벤트

- 소비지 이벤트 및 유통점과의 소비촉진 행사
- 국회, 정부청사, 기업체 등과 연계한 선물세트 보내기 운동
- 도별 소비촉진 행사 추진